

6·15의 역사적 의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



홍근수 향린교회 담임목사,
여중생 범대위 상임공동대표

2000년 6월 15일의 남북 공동선언은 중요한 남북 간의 역사적인 합의이다.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무력으로 대결하고 있던 남북 간에 평화적 통일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고 그것이 평양과 서울에

서 각각 동시에 발표되었기 때문이다. 그 모든 것을 금하는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많은 보좌관들과 함께 남의 대통령이 북의 수도인 평양에 가서 며칠을 묵으면서 6·15 남북 공동선언을 하였다.

무엇보다도 38도선 이북을 반세기 이상 통치해 온 북을 인정하지 않는 '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'는 우리 남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합의를 이루었다.

또한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총련,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단정되고 처벌받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6·15 남북 공동 합의하는 결실을 맺었다.

그러나 지금도 6·15 남북 합의와 병존할 수 없는 법들과 대외적인 군사 안보조약 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들에 의해 구속되는 국민들이 있는 실정이다. 한국은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 나라이다. 양심수라는 말도 이상한 표현이지만, 지금도 구

속되는 양심수들이 있다.

다음으로 이 나라는 독립국이라고 하지만, 군사주권이 없다. 4만 여명의 미군이 반세기 이상 이 땅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온갖 정치·외교·경제 등 정책을 간섭하고 있다. 소위 전시작전지휘권이라는 것이 초강대국인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. 이 나라는 해마다 수 억불을 안보지원비라고 하여 그들 주둔군에게 지불하고 있고, 해마다 이를 인상하고 있다. 뿐만 아니다. 온갖 불필요한 비싼 무기를 해마다 그 초강대국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.

또한 남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평화애호의 정신을 명기하였고 어떤 종류의 대외 침략전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월남전에 파병하였을 뿐 아니라 금년에는 부시 미 대통령의 권유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파병하기도 하였다. 이는 우리 분단 헌법에도 위배됨은 물론이다.

우리는 아직도 "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?"(누가 19:42)라는 예수의 통탄을 들어야 하는 나라이다.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민족인지 모른다.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반세기 이상 민족통일을 하지 못한 채 "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,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는" (미가 4:4)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오고 있다.

전쟁지향적인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애호 정신으로 바꾸자. 진정한 민족자주를 되찾자. 남북 간의 무력충돌에서 북의 군함이 침몰하고 제 2차 서해교전에서는 남의 군함이 침몰하여 젊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중단하자.